

2022. 11.

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필리핀 두마게티시 방문 결과 보고



영 동 군 의 회
Yeong Dong County Council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방문 개요 | 3 |
| 1. 방문배경 | 3 |
| 2. 방문내용 | 3 |
| 3. 방문일정 | 6 |
| II . 주요내용 | 9 |
| 1. 두마게티시장 주재 환영만찬 참석 | 9 |
| 2. 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 협약식 | 11 |
| 3. 학생 해외연수 관련 실리만 대학교 방문 | 13 |
| 4. 두마게티시장 관저 만찬 | 15 |
| 5. 부글라산 축제 관람 | 17 |
| 6. 기타 두마게티시 산업·관광분야 시찰..... | 18 |
| III . 총 평 | 21 |

I 방문 개요

1 방문배경

- 해외 자매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에서 우호교류관계 증진을 위한 초청 서한문이 영동군으로 수신되어,
- 영동군으로부터 의회와 같이 두마게티시에 방문하여 자매도시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,
- 교육·행정·경제·문화·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리적인 국제 교류 성과 도출을 위한 협조 요청에 의해 방문하게 됨.

2 방문내용

□ 방문국 현황

- 장 소 :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주 두마게티시
(필리핀 동네그로스 주(Negros Oriental) 지방의 수도)



- 면 적 : 33.62km²
- 기 후 : 건기와 우기의 2계절(건기 12월~5월, 우기 6월~11월)
연평균 최고기온 34.3 °C, 최저기온 22.9 °C
- 인 구 : 약 18만명
- 특 징 : 필리핀 내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 10개 중 하나.
풍부한 광섬유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분야의 핵심도시.
20여개의 IT 및 BPO(업무처리 아웃소싱) 사업체를
보유한 정보 기술의 중심지.

□ 주요내용

- 필리핀 두마게티市와 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 협약식 및 계절근로자
관련 교류간담회 개최 등 우호교류협력 관계 증진
- 실리만대학교 영어캠프 운영 관련 청소년 교류업무 논의
-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두마게티市 정부관계자 면담
- 두마게티시에서 개최되는 네그로스 오리엔탈주 최대축제 『2022
부글라산 축제(Buglasan Festival)』 견학

□ 방문자 명단

| 번호 | 소 속 | 직위(직급) | 성명 | 주요역할(임무)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1 | 군 수 | 영동군수 | 정영철 Jeong Young-Chul | 방문단장 | 공무원 |
| 2 | 행정과 | 행정과장 | 서종석 Seo Jong-Suk | 교류업무 총괄 | |
| 3 | | 민간협력팀장 | 정미숙 Jeong Mi-Sook | 교류업무 추진 | |
| 4 | | 민간협력팀원 | 최성준 Choi Seong-Jun | 교류업무 실무 | |
| 5 | | 수행비서 | 박병훈 Park Byeong-Hoon | 군수님 수행 | |
| 6 | 농정과 | 농정과장 | 성억제 Sung Uk-Jae | 계절근로자 업무 | 민간인 |
| 7 | 기획감사관 | 주무관 | 박준우 Park Jun-Eu | 홍보(영상촬영) | |
| 8 | 기획감사관 | 주무관 | 강헌석 Kang Hean-Seok | 홍보(사진촬영) | |
| 9 | 행정과 | 통역관 | 이경환 Lee Kyung-Hwan | 동시통역 | |
| 10 | 의회 | 의장 | 이승주 Lee Seung-Joo | 국제의정활동 | 의원 |
| 11 | | 행정복지위원장 | 이대호 Lee Dae-Ho | | |
| 12 | | 산업경제위원장 | 김오봉 Kim O-Bong | | |
| 13 | | 의원 | 김은하 Kim Eun-Ha | | |

3 방문일정

○ 일정(1일차 ~ 2일차)

| 일시 | 여행지 | 교통편 | 시간 |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일차 10/25 (화) | 인천공항 | 관용차량 | 13:00 | 집합 및 영동군 출발 | 현지시간 적용 (시차: 한국시 -1시간) |
| | | | 17:30 | 인천공항 도착 및 출국수속 | |
| | | PR469 (FSC) | 20:35 | 인천국제공항 출발 | |
| | 마닐라 | 현지차량 | 23:35 | 마닐라 국제공항 도착 | |
| | | | 24:00 | 숙소 이동 (더마닐라 호텔) | |
| 2일차 10/26 (수) | 마닐라 | 현지차량 | 09:00 | 마닐라 주요관광시설 견학 (산티아고 요새/대성당/리잘공원 등) | |
| | | | 12:00 | 중식 | |
| | | | 13:00 | 공항 이동 수속 | |
| | 두마게티 | 현지차량 | PR2542 (FSC) | 13:25 | 마닐라 국내공항 출발 |
| | | | 14:45 | 두마게티 국내공항 도착 | |
| | | | 18:00 | 두마게티시장 주재 환영만찬(언론취재) | |
| | | | 21:00 | 숙소 이동(브릭스 호텔) | |

○ 일정(3일차 ~ 6일차)

| 일시 | 여행지 | 교통편 | 시간 |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|----|
| 3일차 10/27 (목) | 두마게티 | 현지차량 | 08:00 | 조식 | |
| | | | 09:00 | 두마게티시청 방문(언론취재) -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 협약식 -계절근로자 관련 교류간담회 | |
| | | | 12:00 | 오찬 | |
| | | | 15:00 | 학생 해외연수 관련 실리만 대학교 방문 시찰 | |
| | | | 16:00 | 부글라산 축제 관람(판타완) | |
| | | | 18:00 | 두마게티시장 관저 만찬 (공무원 및 계절근로자 참석) | |
| | | | 21:00 | 숙소 이동 | |
| 4일차 10/28 (금) | 두마게티 | 현지차량 | 07:00 | 수상교통 및 해양관광시설 견학 | |
| | | | 12:00 | 수상가옥 견학 및 중식 | |
| | | | 15:00 | 태권도 시범대회 참관(시범:조슈아 킴) | |
| | | | 18:00 | 두마게티시청 공무원과 만찬 | |
| | | | 21:00 | 숙소 이동 | |
| 5일차 10/29 (토) | 두마게티 | 현지차량 | 07:30 | 조식 | |
| | | | 08:30 | 탐보보 베이 이동 - 아길라 가구 생산 공장 방문 | |
| | | | 12:00 | 중식(아길라) | |
| | | | 14:00 | 발렌시아 삼림 캠프 방문 | 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| 16:00 | 무그나 예술박물관 방문 (특산품 및 예술품 관람) | |
| | | | 18:00 | 석식 | |
| | | | 21:00 | 숙소 이동 | |
| 6일차 10/30 (일) | 두마게티 | 현지차량 | 07:00 | 조식 | |
| | | | 08:00 | 부글라산 축제 경연대회 참관 | |
| | | | 12:00 | 중식 | |
| | | | 14:00 | 두마게티시 주요 관광지 시찰 (발렌시아 온천, 플랑바토 폭포) | |
| | | | 16:00 | 부글라산 축제장 관람 | |
| | | | 18:30 | 두마게티시장 관저 환송만찬 - 한국교민 및 학생 참석 | |
| | | | 21:00 | 숙소 이동 | |

○ 일정(7일차)

| 일시 | 여행지 | 교통편 | 시간 | 내용 | 비고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7일차 10/31 (월) | 두마게티 | 현지차량 | 08:00 | 조식 후 국내선공항 이동 | | |
| | | PR2542 (FSC) | 09:30 | 두마게티 공항 출발 | | |
| | | | 10:50 | 마닐라 국제공항 도착 환승 | | |
| | 마닐라 | PR468 (FSC) | 14:25 | 마닐라 국제공항 출발 | | |
| | 인천공항 | 관용차량 | | 19:30 |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| |
| | | | | 20:30 | 인천공항 -> 영동군청 출발 | |
| | | | | 23:30 | 영동군청 도착 후 해산 | |

Ⅱ 주요내용

① 두마게티시장 주재 환영식 참석

○ 개 요

- 일 시 : 2022. 10. 26.(수) 18:00
- 장 소 : 프레지덴시아 운동장
- 참 석 자 : 레몰로 시장, 라니 라몬 행정국장, 카리사 틀렌티노 수석 시의원, 프랑클린에스메냐 시의원 등
- 주요내용 : 환영식

<환영식>



- 프레지덴시아 운동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두마게티시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음.

- 두마게티 시장 레플로와 시 관계자들은 한국과 필리핀의 미니어처 깃발을 열광적으로 흔드는 초·중·고 학생들 사이에서 방문단을 환영해줌.

<산두룻 페스티벌 댄스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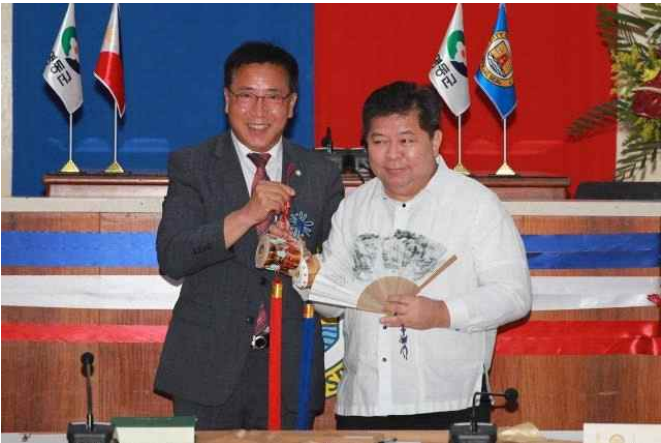
- 두마게티시 국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산두룻 페스티벌 댄스를 선보임.
- 산두룻 페스티벌은 ‘친교와 소통’을 의미하는 퍼레이드로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풍부한 역사를 지닌 두마게티시를 기념함.
- ‘온화한 사람들의 도시’란 별명에 걸맞게 친절한 의전과 따뜻한 안내에 참석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.

② 자매결연 우호협력 강화 협약식

○ 개 요

- 일 시 : 2022. 10. 27.(목) 09:00 ~ 12:00
- 장 소 : 상구니앙 판룽소드 세션홀
- 참 석 자 : 레몰로 시장, 라니 라몬 행정국장, 카리사 틀렌티노 수석 시의원, 마리아 마리프 시의원, 아구스틴 미구엘 시의원 등
- 주요내용 : 자매결연 강화 협약

< 자매결연 협약식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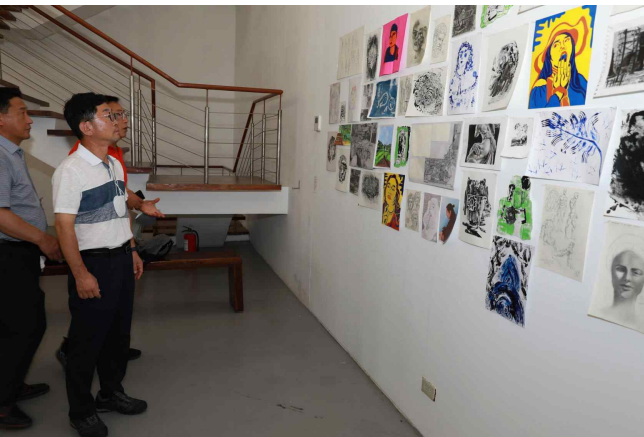
- 두마게티시청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자매결연 강화 협약에 서명함.
- 올해는 영동군 포도농장에 두마게티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지 1주년 되는 해임.
- 내년에는 150명의 계절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며, 계절근로자와 군의 교량 역할을 담당할 두마게티시 파견 공무원 또한 현재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확대 검토.
- 이번 우호협력 강화협약은 행정, 경제, 문화, 스포츠 및 관광 분야의 프로젝트 교류 촉진 및 확대 예정.
-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.

③ 학생 해외연수 관련 실리만 대학교 방문

○ 개 요

- 일 시 : 2022. 10. 27.(목) 15:00
- 장 소 : 실리만 대학교
- 참 석 자 : 두마게티시 및 영동군 관계자
- 주요내용 : 청소년 해외연수 관련 시찰

< 실리만 대학교 >



- 두마게티는 시민의 30%가 학생일 정도로 교육의 도시로 유명.
- 실리만대학교는 두마게티시에 있는 사립연구 대학으로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미국 개신교 학교임.

- 실리만 대학교는 필리핀 인증기관연합(FAAP)의 ‘기관 인증’을 받은 필리핀 내 5개 대학교 중 하나로 프로그램, 시설,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부여되는 최고등급의 인증임.
- 실리만 대학교 부속으로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있고, 이곳의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됨
- 현재 전북대, 한신대, 숙명여자대, 숭실대, 한양대, 한남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음.
- 한국의 많은 학교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, 이를 바탕으로 누적된 노하우가 있는 실리만 대학교만의 특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자부심이 있었음.
- 필리핀에서 이미 많은 한국 유학생이 공부하는 학교로 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 기대.

4 두마게티시장 관저 만찬

○ 개 요

- 일 시 : 2022. 10. 27.(목) 18:00
- 장 소 : 두마게티시장 관저
- 참 석 자 : 영동군 관계자 및 계절근로자
- 주요내용 :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강화 방안 논의

< 관저 만찬 >



- 레몰로 시장이 영동군 관계자들과 계절근로자를 위한 만찬회를 주최하여 한국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생계를 상생하는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논의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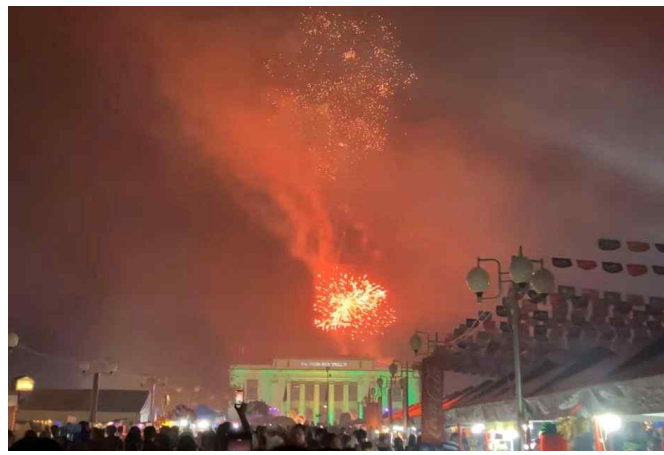
- 두마게티시 사람들은 와이너리 사업과 기술에 관심이 많아 이번 프로그램 강화 협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, 레몰로 시장 또한 두마게티시 시민들이 해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길 원했음.
- 올해는 39명의 계절근로자들이 4월에 입국해 9월까지 23농가에 머물며 과일적과, 포도순따기, 복숭아 봉지씌우기 등의 영농작업에 종사하였음.
- 계절근로자 및 고용농가의 사전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한 농가들 만족도가 높았음.
- 다만 아쉬웠던 점으로는 올해 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역을 지원하였는데, 이로는 언어 장벽 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며, 추후에는 사전교육으로 간단한 한국어 기초회화 및 한국문화 교육을 당부하였고 이를 전달하였음.
- 영동군은 장기간 외국 생활에 지친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일일 투어를 준비했었는데 이 또한 특색 있고 투어에 참여한 계절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.
- 투어에 참여한 한 계절근로자는 ‘일일 투어를 통해 영동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, 다른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다고’ 소감을 말함.
-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등으로 가중된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었고 인력난에 지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한해였던 것만큼 앞으로의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대안이 되길 기대함.

5 부글라산 축제 관람

○ 개 요

- 일 시 : 2022. 10. 30.(일) 16:00
- 장 소 : 축제장 일원
- 참 석 자 : 레몰로 시장, 시공무원, 지역인사, 축제참가 주민 등
- 주요내용 : 축제 관람

< 부글라산 축제장 >



- ‘축제 중의 축제’ 라고 알려진 부글라산 축제는 네그로스 오리엔탈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축제중 하나로 2002년부터 매년 10월 중순에 주의 주도인 두마게티 시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함.

- 주내 6개 시와 19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 축제는 열흘 동안 열리는 행사로 대부분의 활동은 포르빈설 캐피톨과 니노이 아퀴노의 자유 공원에서 진행됨.
- 네그로스 오리엔탈주에 속한 모든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는 축제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보여주는 것을 기반함.
-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축제에는 스트리트 댄스 대회, 야간문화쇼, 음식 축제, 무역박람회와 같은 행사가 개최되며, 축제중 하이라이트는 미스 네그로스 오리엔탈 선발대회임.
- 우리 충청도 160만 도민 화합 축제의 장인 ‘충북도민체전’ 이 내년에 영동에서 개최되는데, 한자리에 모여 충청도민이 하나로 뭉치고 화합의 장이 되길 고대하고,
- 영동군 4대 축제(포도, 국악, 와인, 꽃감)도 영동군만의 축제가 아닌 동남부 4군 더 나아가 전국의 화합장이 되기를 바램.

⑥ 기타 두마게티시 산업·관광분야 시찰



〈수상교통 및 해양 관광시설 견학〉



〈두마게티시 태권도 시범〉



〈아길라 가구 생산 공장 방문〉

Ⅲ 총평

-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10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, 관광, 경제, 청소년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으며,
- 공동 번영과 도약을 위한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, 교류 확대와 점진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함.
- 특히 이번 협약에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주년을 맞아 행정·경제·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 확대, 각 대표 축제·문화 행사에 예술단 상호파견, 문화교류 증진, 계절근로자·청소년 교류 확대를 담음.
-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성황리 진행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짐.
- 올해의 성공한 결과를 토대로,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, 모니터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질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결과 공유로 만일에 있을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필리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교인 실리만대학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함.
- 문화, 체육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그로스 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부글라산 페스티벌처럼 우리도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충북도민을 하나로 묶고, 더 나아가 함께 상생, 발전하기를 바랍.